

진즈의 발달과정

진즈(jeans)의 어원은 Genes(불)로 이탈리아의 Genoa 지방의 직물을 말한다. 또한 진즈는 'jean'이라고 하는 직물을 뜻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진(jean)으로 만든 바지를 뜻한다.

사전을 보면 진의 원어는 'jean'인데 때로는 'jeans'(미국에서 주로 사용)이라고도 하며, 불어로는 treillis, 독일어로는 baumwilk per이다. 진즈와 같이 쓰이는 denim은 고대 직물의 중심지인 프랑스 Nemes지방에서 생산되는 능직의 면직물을 'Serge de Nemes'라고 부른 것이 미국화 되어 denim이 된 것이며, 이외에 dungarees는 힌두어의 dungri로 부터 나온 것으로 올이 성근 무명천을 말한다. 이는 원래 인도 선원용 작업복에 사용된 것으로, 덩가리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덩가리로 만든 의복을 가리킨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진즈라 하면, 일반적으로 '청바지'라고 알려져 있으며,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청바지는 "청색의 바지 특히, 블루진 바지를 일컫는다"고 한다. 1853년 Levi Strauss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오늘날에는 연령, 성, 인종의 구분 없이 착용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작업복에서 시작하여 젊은 이들의 저항, 자유, 개성의 상징으로 다양한 의미의 변천과정을 겪어왔다.

단일 의류품목으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품목은 많지 않다. 또한 진즈는 젊음, 반항 등 아주 다양한 양식으로 그 시대 젊은 층의 욕구를 대변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당시까지만 해도 작업복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던 진즈가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변혁기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 시기부터 대다수의 젊은 층은 누구나 한 벌쯤의 진즈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흐름은 전세계적으로 유행되면서 패션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러한 청년문화의 시대적인 변혁을 주도하는데, 연대별 진즈의 발달 변천과정을 다양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① 1800년대

1853년 최초로 진즈가 만들어진 이후 초기 착용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찾아 나선 포티나이너(49er)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전쟁기(1861~1865)이후에 남부가 패배하고 난 후, 동부의 농업 개척자들과 서부의 광부들이 주요 착용자였으며, 철로사업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철로를 건설하는 레일맨들도 또한 진즈를 착용한 주요 고객이었다.

1872년 Nevada의 Carson시에 있는 양복점 주인인 Jacob Davis는 Levi Strauss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는데, 그들은 당시 힘든 작업에 주로 쓰이는 청바지의 터지기 쉬운 부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구리 리벳(rivet)을 붙이는 방법을 고안하여 1873년 특허를 받았다.

실제로 리바이스 진즈 원형은 이 때부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구리 리벳을 붙이는 표시는 옷감의 질과 무게가 두 배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식이었다.

그 해 또 다른 특허사항으로서 뒷주머니에 활(arcuate) 모양의스티치를 한 것이었다. 1890년에는 진즈에 처음으로 50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1905년에 앞 주머니 오른쪽 안쪽에 다섯 번째 포켓인 동전(coin)포켓이 부착된 후, 오늘날 리바이스 501모델이 완성되었다.

② 1900년대~1920년대

1920년대 말에는 서부 신화의 상징물로 할리우드의 카우보이 영화 속에 진즈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서부의 목장 경영자들은 경제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동부의 돈 많은 카우보이들에게 복장을 개방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당시 카우보이들의 주요 복장이 진즈였는데, 이러한 그들의 복장은 남녀 모두에게 남성적인 로맨틱한 이미지를 풍겨 진즈 문화의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③ 1930년대

1930년대에는 미국의 동부 부호들이나 도시 여성들에게 패션으로 수용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소수인들의 모방 현상으로 광범위한 수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진즈의 패션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진즈의 착용인구 확대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1935년에 Vogue의 패션특집 기사에는 여성들의 진즈가 수용의 상징으로 게재되었다. 1936년 진즈가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확산되자 리바이스의 활 마크를 모방하는 업체가 많아져, 타브랜드와 구별하기 위하여 리바이스사는 문자를

새긴 빨간 탭(tab)을 오른쪽 힙 포켓 좌측에 부착하였다. 1938년 리바이스사는 여성들을 위한 Lady Levi's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Lady Levi's는 나중에 701 모델로 알려졌고, 가벼운 데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여성을 위해 디자인된 최초의 웨스턴 진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1940년대

1941년~1946년 사이 2차 세계대전의 미국 참여는 진즈의 세계적인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쟁 당시 데님 작업복은 미국 군인들에게 유니폼으로 입혀졌는데, 전쟁이 끝나자 유럽에서 병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함에 따라 유니폼을 공급하던 상점들이 진즈의 재고가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4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 있던 상점들이 본격적으로 진즈를 팔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진즈가 보급되는 계기였고, 이 때부터 진즈의 유행이 유럽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2차 대전 중 진즈는 많은 여성들에게도 착용되었다.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은 기존의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과중한 산업노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처음으로 데님 작업복을 입게 되었다. 전쟁 당시 진즈는 대학 캠퍼스에도 나타났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대학생들이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노동자들과의 일치단결의 표시로 입기 시작한 것으로, 이는 1960년대 말에 크게 나타나는 유니섹스 차림의 첫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남녀구분 없이 점차 캐주얼화된 차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⑤ 1950년대

젊은이들은 기성 세대에 의한 강요된 의복을 거부하고 자신들 스스로 선택한 의복을 입었는데, 그 대표적인 복식이 바로 진즈이다. 당시 젊은이들에게 진즈는 기성세대에 대한 자신들만의 의복이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즈의 유행은 보다 널리 빠르게 확산되었다. 틴에이저들에게는 학교 제복과 같은 보수적인 의상이 강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밝은 색상의 니트 셔츠, 줄무늬가 강한 원색의 스웨터 같은 캐주얼한 의복을 좋아했고,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는 이러한 캐주얼한 의복과 함께 꼭 맞는 타이트한 진즈를 많은 젊은이들이 착용하였다. 당시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진즈의 유행이 보다 널리 퍼지게 된 데에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 '워터 프론트'에서 마론 브란도가 리바이스 501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은 이들의 이미지를 모방하기 위해 진즈를 착용했으며, 이를 계기로 진즈는 급격히 확산되었다.

1954년 처음으로 페이드 아웃(fade out) 진즈가 발매되었으며, 1950년대 초반에 진즈의 스타일은 허리나 허벅지부분은 편안하게 맞으면서 길이를 적당히 접어 올린 comfort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58년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꼭 끼게 입는 진즈가 나타났으며, 길이도 발목까지 오는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진즈는 지금까지 서부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변영의 영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세계 젊은이들의

유니폼으로 채택되면서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⑥ 1960년대

진즈를 입는 것은 이전의 개념과는 달리 개성의 표시였고, 달라지기 원하는 젊은이들의 표현이었다. 당시 사회에 저항하는 반체제 정립의 일환으로서, 중류계층의 젊은이들은 노동자들의 유니폼인 진즈를 입었으며, 많은 노동자들 또한 진즈를 입는 일을 더욱 계속했다. 당시 젊은이들의 메시지는 유행을 반대하고 반체제 사회를 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진즈 착용자들은 개성을 원했다. 그리하여 플레어와 벨 보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진즈를 요구하였고, 진즈 자체만으로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진즈에 개성있는 장식을 더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진즈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유행하여 고객의 청바지에 즉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상점들이 생겨나기도 하였으며, 애플리케, 자수, 패치, 라인 스톤 등으로 장식한 진즈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1960년대 초반에는 꼭 끼는 스타일로 50년대 중반에 부분적으로 유행하다가 60년대 초반에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당시 10대와 20대 초의 젊은이들은 일부러 진즈를 욕조에 담가서 줄어드게 했다. 엉덩이와 다리부분을 문질러서 색이 바래게 하여 입어서 낡은 것 같은 모습을 추구하였다. 1966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바지를 더 좋아했다. 그 이유는 힙이 납작하게 맞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남성들의 바지는 허리가 너무 컸다. 그 당시 나타난 엉덩이에 낫게 걸쳐지는

힙스터 바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고,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진으로 된 힙스터 바지를 착용하였다.

1967년 이후 베트남 전쟁의 공포는 사회 분위기를 초기의 열정과 활기로부터 가라앉게 하였으며, 당시 나타난 히피스타일의 의복은 패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때 유행한 진즈는 힙은 꼭 맞으면서 바지 끝이 넓게 플레어지는 스타일이었다. 이러한 벨 보텀 진즈를 리플이 달린 프릴이 장식된 블라우스나 셔츠와 함께 착용했으며, 이는 남녀 모두 애용한 스타일로 높은 굽이 달린 부츠나 세무 부츠를 함께 착용하였다.

넓은 옷을 입으려는 고의적인 선택은 기존의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한 향수에서 싹튼 ethnic에 대한 관심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60년대 말에 새로운 유행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fade된 진즈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새것이 아니거나 비싸 보이지 않는 옷을 좋아하는 것은 물질주의 사회와 인조섬유로 만든 대량 생산된 의복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⑦ 1970년대

70년대에 들어 진즈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미국, 유럽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40세 이하의 대부분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벌의 진즈는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10대의 젊은이들은 학교 교복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늘 진즈를 입었고, 반사회체제와 반패션주의 젊은이들은 의도적으로 지저분

하고 닳은 운동화에 낡아 떨어진 술이 달린 진즈를 입었다. 카우보이 모습의 웨스턴 스타일이 유행하여 넓은 가죽 벨트와 함께 진즈를 착용하였으며, 진 쇼트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진즈 외에도 모자, 캡, 벨트, 신발, 수영복 등도 진으로 된 것이 유행하였다. 진과 데님의류가 대량으로 생산되었으며, 백화점에서도 진 분야를 만들었고, 진 전문상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진즈와 함께 티셔츠도 기본 작업복처럼 되었고, 70년대에는 형태가 조끼 같은 상의에서부터 줄무늬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 대학의 이름과 슬로건과 같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금사와 반짝이는 모티브로 수 놓은 부드러운 니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것이 진즈와 함께 착용되었다. 이 때 유행하던 진즈의 스타일은 플레어와 bags(자루처럼 폭이 넓은 바지, 옥스퍼드 백스 스타일에서 유래)였다. '이유 없는 반항' 영화포스터는 엉덩이와 허벅지가 꼭 끼게, 그리고 무릎아래부터 넓어져 아래가 벨 모양이 되는 스타일이었으며, bags는 20, 30년대에 입혀졌던 앞주름이 들어간 헐렁한 바지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70년대의 이 스타일은 더욱 엉덩이 둘레를 보다 꼭 맞게 하였고, 높은 부츠나 구두 위에 착용함으로써 2차대전보다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실루엣이었다. 진즈와 함께 착용된 옷으로 방수가공된 아노락 재킷(Anorak jacket : 파카)과 좁고 몸에 맞는 비행 재킷(Aviator jacket), 주머니가 달린 블루종 재킷이 있었다. 오래된 낡은 군복 코트 또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진즈는 걷어 올려 입거나 높은 가죽 부츠 안으로 넣어 입는 것을 선호하였다.

70년대 초반 베트남 전쟁은 젊은 세대들에게 강한 반전 감정을 불러 일으

켰지만, 이러한 감정과는 반대로 군복 같은 의상이 젊은이들에게 일시적인 패드 현상으로 나타났다. 모조품이나 진짜 배지를 단 소매에 주름이 있는 군복 셔츠가 꼭 끼는 진즈와 함께 많이 착용되었다.

70년대 후반 플레어에서 다시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진즈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50년대 말과 60년대 초반쯤 좁고 끼지는 않았으나, 더 날씬해 보이고, 더 직선적인 스타일인 tight fit와 tapered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풀오버와 가디건 같은 몸에 맞는 스타일보다 화려한 스티치와 패턴, 혹은 평범한 색의 헐렁한 스웨터와 함께 좁은 스트레이트 진즈를 착용하는 것이 인기가 있었다. 이후 허벅지와 힙은 헐렁하고 여유가 있으면서 다리는 50년대의 drain pipe처럼 좁아진 배기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70년대 초 아래단이 퍼지는 플레어와는 정반대의 것으로, 10여 년 사이에 진즈 스타일이 극단적으로 변한 것이었다. 1975년 진즈의 가공기법인 스톤 워싱법이 일본의 에드윈사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붐을 이루었으며, 이 공정법은 1979년 이후 대중화되었다. 1977년 하이패션 디자이너인 Calvin Klein에 의해 디자이너 진즈가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이는 진즈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까지 차별화 시키려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곧 유럽까지 확대되어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⑧ 1980년대

진즈는 일반화가 이루어져 인종, 성, 연령의 계층에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착용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젊은 층의 상징이던 진

즈는 출현 당시의 작업복 스타일의 단순성과 실용성에서 벗어나 색상과 장식, 형태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져 패션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8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로 캐주얼 팬츠가 많이 나타나고 패션주기가 단축된 원인 등으로 진즈의 선호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1981년에 잠시 베이직 진즈가 유행했지만, 1984년에 다시 침체되었다.

1985년은 destroyed 진즈가 영국 디자이너인 Katharine Hamnett에 의해 처음 상품화되면서 매우 인기를 끌게 되었고 Levi's사는 basic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을 펼쳤는데, 이 501 진즈의 부활과 함께 진즈 시장이 부활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다시 진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스톤 워싱 진즈가 압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나타난 acid wash 가공법은 표백된 진즈를 염소와 부석과 같이 가공하는 방법으로 돌에 의해 진즈가 마모되어 독특한 색상을 갖게 되는데, 이탈리아 회사인 Rifle에서 처음으로 1986년에 상품화하였다. Moon, fog, marble, ice, frost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진즈 업계의 부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많은 워싱기법의 개발로 다양한 진즈가 나타나게 되었다.

1988년 트리밍에 가죽을 사용하는 것과 만화 프린트가 나타났으며, 전통적인 웨스턴 스타일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여성들에게는 발목까지 오는 tight fit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 스타일은 한동안 계속 인기를 유지했다. 남성들에게는 발목이 보이도록 바지 단을 접어 올려 입는 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다.

⑨ 1990년대 이후

Comfort 스타일과 over-sized 스타일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인디안 vest라든가 세련된 카 레이서 룩과 함께 매치시켜서 진즈를 입었다.

허벅지 부분과 힙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탈색한 진즈가 나타났으며, 대담한 로고의 장식이나 다양한 색상의 컬러 진즈 또한 유행하였으며, 1993년에는 네오 히피룩이 유행하면서 벨 보텀 진즈가 나타났으나, 그리 오래 유행하지는 않았다. 1994년 이후에는 Classic한 bottom fly 진즈가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랩퍼들에게서 나온 힙합 스타일과 다리가 길어 보이는 세미 피티드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이르러서는 중고 진즈의 부활과 더불어 Levi's의 열풍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